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32호 1판 (음력 4월 4일) 2014년 5월 2일 금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海警, 종합훈련 때 승선자 탈출훈련 안했다

〈3월 11～14일 목포 해상〉

"임무 완벽수행 … 최적의 위기 대응능력 구축" 대대적 홍보

세월호 신고접수·수색·구조 총체적 부실 … 도대체 뭐했나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참사 한 달 전 해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도로 대규모 '해상종합훈련'을 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불과 한 달 뒤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어처구니없는 초기 대응으로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나마 해경 측은 해상훈련 때 인명구조 훈련은 하지만 침몰 중인 선박에서 승선자들을 탈출시키는 훈련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목포 인근 해상 및 육상에서 인명구조·응급환자 처치·비상조타 등 9개 부문 24개 종목에 대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해상종합훈련은 '완벽한 해상임무 수행과 해양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서해청과 목포해경 주도로 3009함 등 경비함정 11척과 해경 251명이 참가했다.

해경은 당시 보도자료까지 내며 "해상사고 발생 시 수색·인명구조 및 생존술 강화훈련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부여해 최적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는 불과 한 달 뒤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 탁상행정식 쇼였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종합훈련'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의 초라한 대응력을 보여줬다. 최초 신고 접수 과정에서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반복해서 묻는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사는가 하면, 구조 헬기도 신고 접수 뒤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나마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에 구조 지원 요청도 늦어 '골든 타임'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비함정도 승객 또는 선원의 퇴선 여부 등을 파악토록 한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고 선박 주변 수색에만 머무르는 소극적 구조 활동을 벌였다. 지난해만 해양경찰청·서해지방청 주도로 이뤄진 4차례의 해상훈련이 '말 뿐인' 훈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해경은 해상종합훈련과 관련, 보도자료에까지 명시했던 책임 담당자조차도 대답을 피했고 구체적 시나리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전성권 목포해경 경비구난계장은 "다른 부서에 전화해 봐라, 해상종합훈련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들 세월호 침몰 16일째인 1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서로 꼭 부둥켜 안은 채 아프고 지친 마음을 의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83명	사망 219명

※ 1일 오후 8시 현재

세월호 관련기사 ▶2·3·4·5면

광주시장 '운명의 날' 安의 선택은?

오늘 최고위 전략공천·경선 결정

"전략공천이냐, 경선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 여부 결정이 막판으로 치달으며 안철수 공동대표의 '선택'에 광주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밤 상임 최고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뒤, 2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만 후보 경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데다 3일부터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박적인 분위기는 '전략공천'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경선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철수·김한길 대표의 '전략공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두 대표가 '전략공천'을 밀어붙이기 위해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경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전략공천이 현실화 할 경우 곧바로 낙하산 공천, 지분공천이라는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민을 '정치적 볼모'로 여기고 있다는 민심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이상의 최고위원들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와 관련 강 시장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결의문을 통해 '전략공천'을 강행한다면 '탈당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시 경제 성과지표

가구소득	4271만원(2012년)➡4667만원(2013년·9.3%⬆)
가구저축	5997만원(2012년)➡7631만원(2013년·27.2%⬆)
지역총생산	22조 1000억원(2009년)➡26조 8000억원(2012년·21.3%⬆)
전통시장 매출액	116억원(2010년)➡124억원(2013년·6.8%⬆)
도소매업 매출액	7989억원(2009년)➡1조 1439억원(2012년·43.1%⬆)

광주, 생산·수출도시 '가속도'

통계청 발표 광공업생산지수 전년 동월보다 14.3% 증가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산·수출 도시로 완벽히 체질을 개선했다. 시가 산업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시민 소득과 취업자 수, 골목상권 매출액 등도 급상승해 서민경제의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광주의 2014년 3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4.3%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2.7%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증가율로, 전국 특·광역시중 단연 1위다. 지난해 광공업생산지수 증가율도 전국 평균(-0.1%)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6.8%나 상승, 대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안전행정부·통계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의 2013년 지역경제동향 자료에서도 민선 5기 경제 성과는 확연하다.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광공업 생산 증가율을 보였던 광주시가 민선 5기 4년을 거치면서 특·광역시 1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등의 지역별 생산 활동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경기 상황 지표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연간 무역수지 흑자액도 사상 처음으로 울산을 제치고 7대 특·광역시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광주지역 무역수지 흑자는 109억5200만달러로, 전년도 무역흑자 93억9285만달러 보다 무려 20%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액이 늘었다는 것은 수출액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는 실제 지난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청 이래 가장 높은 159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증가율도 12.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광주는 특히 민선 5기 들어 국내 제2 도시인 부산의 수출액을 앞지른 뒤 단 한 번도 뒤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의 취업자 수 증가 속도도 단연 돋보인다.

지난해 광주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3.4%로, 충남(7.7%)에 이어 전국 2위다. 전국 평균은 1.6%에 불과했다. 광주는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올 1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분기별 취업자 수 증가율도 전국 대도시 중 1위를 유지 중이다.

민선 5기 이전인 2009년 22조1000억원(1인당 1500만원)에 불과하던 지역총생산액도 2012년 기준 26조8000억원(1770만원)으로 21.3%나 증가했다.

지역경기가 활기를 찾음에 따라 골목상권인 도소매업 매출액도 지난 2009년 대비 43.1% 껑충 뛰어 전국 대도시 중 2위에 올랐고, 전통시장 매출액도 2013년 기준 124억원으로 전년대비 6.8%증가해 2위를 기록했다. 광주시민도 소득이 서서히 늘면서 저축을 더 많이 하는 등 건실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가구소득과 가구저축 증가율은 각각 9.3%(전국평균 5.7%), 27.2%(12.4%)로 전국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광주의 낙후됐던 경제가 되살아 났다"면서 "시민에 따라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상승률을 3년만 더 유지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일 어린이날·6일 석가탄신일 휴간 … TV프로그램 18·19면